



2013년 1월 9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아프리카 성장의 수혜는 공짜가 아니다

• 이머징마켓 동향

차익실현으로 금융주 하락, 중화권 증시 약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LG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농심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미디어.광고,

CJ대한통운, 현대백화점, CJ E&M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유가증권	구분		12/28(금)	01/02(수)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종합주가지수		1,997.05	2,031.10	2,019.41	2,011.94	2,011.25	1,997.94
	등락폭		9.70	34.05	-11.69	-7.47	-0.69	-13.31
	등락종목	상승(상한)	479(7)	545(10)	443(6)	419(10)	393(10)	370(12)
		하락(하한)	314(1)	277(2)	376(1)	377(0)	398(1)	430(1)
	ADR		102.22	102.28	102.56	105.25	106.00	106.25
	이격도	10 일	100.34	101.91	101.20	100.68	100.55	99.89
		20 일	101.38	102.86	102.04	101.48	101.25	100.45
	투자심리		70	70	70	70	60	50
	거래량	(백만 주)	291	360	485	373	533	490
거래대금	(십억 원)	3,188	4,400	5,988	4,677	3,942	3,904	
코스닥	코스닥지수		496.32	501.61	499.07	504.84	508.72	509.01
	등락폭		4.24	5.29	-2.54	5.77	3.88	0.29
	등락종목	상승(상한)	606(12)	650(17)	429(14)	566(12)	529(10)	436(12)
		하락(하한)	306(1)	293(2)	500(1)	326(2)	390(0)	481(1)
	ADR		94.81	97.82	96.95	100.50	101.82	105.66
	이격도	10 일	102.07	102.91	102.24	103.01	103.26	102.70
		20 일	101.39	102.42	101.90	103.02	103.74	103.67
	투자심리		50	50	40	50	60	70
	거래량	(백만 주)	324	338	384	395	412	426
	거래대금	(십억 원)	1,486	1,490	1,728	1,862	1,804	1,73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1,950.2	1,158.6	784.0	220.2	101.3	212.7	33.4	25.5	165.1	38.3
	매도	1,871.1	1,109.4	901.5	196.7	130.2	280.5	47.6	24.2	190.2	49.1
	순매수	79.1	49.2	-117.5	23.4	-28.9	-67.8	-14.2	1.4	-25.1	-10.8
	01 누계	-105.8	355.6	-231.8	54.0	142.8	-346.6	-60.7	12.0	0.2	-18.1
	13 년 누계	-105.8	355.6	-231.8	54.0	142.8	-346.6	-60.7	12.0	0.2	-18.1
코 스 닥	매수	1,580.8	80.1	81.9	11.9	10.8	29.1	4.3	2.6	21.4	13.4
	매도	1,596.1	73.1	72.5	10.2	8.7	20.0	3.4	7.0	20.9	14.5
	순매수	-15.3	6.9	9.4	1.7	2.2	9.1	0.9	-4.5	0.5	-1.0
	01 월 누계	-28.1	4.2	36.3	12.1	12.9	15.0	3.4	-5.5	0.2	-12.4
	13 년 누계	-28.1	4.2	36.3	12.1	12.9	15.0	3.4	-5.5	0.2	-12.4

아프리카 성장의 수혜는 공짜가 아니다

1월 월간 밴드	1,950-2,08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5배
12MF PBR	1.06배
Yield Gap	7.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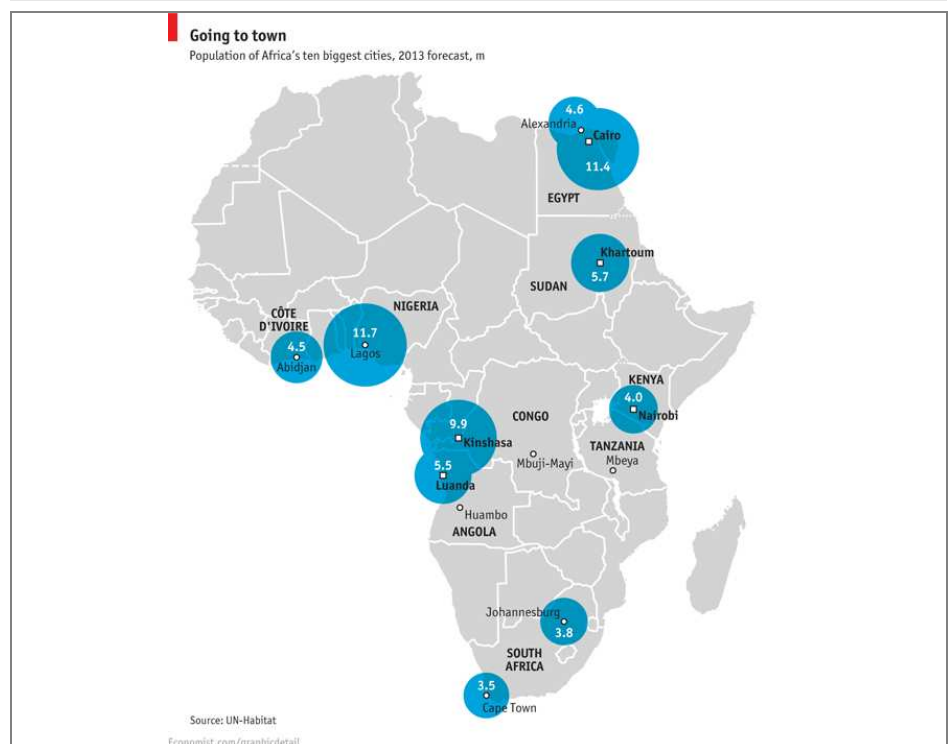
- ▶ 중국과 더불어 고성장, 도시화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
- ▶ 도시화에 따른 소비증가와 더불어 인프라/플랜트 건설 수요 크게 증가
- ▶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아프리카 중요 시장 지배력: 자금력과 외교력
- ▶ 현지화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꼬를 터야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 위한 잔걸음 필요

■ 도시화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도시화 추진을 위한 ‘도시화 발전 촉진 계획 2011-2020년’ 초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중국 총리인 리커창은 지난해 말 “중국의 최대 발전 잠재력은 도시화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차기 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중국은 2011년말 도시화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2020년경 70%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예외라고 여겨지는 중국에서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구 반대편인 검은대륙 아프리카에서도 도시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UN에 따르면 2013년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인구가 1,170만명으로 이집트 카이로의 1,140만명을 넘어 아프리카 최대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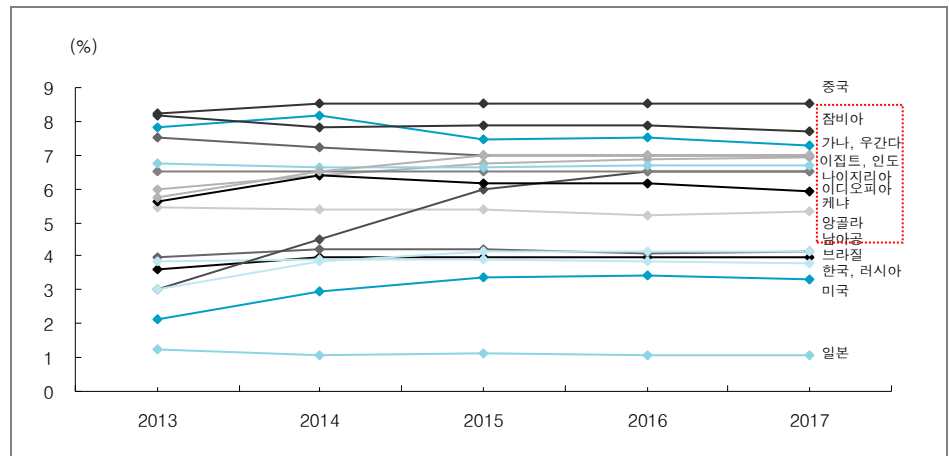
[그림 1] 아프리카 10대도시 2013년 인구 전망 (단위: 백만명)



자료: Economist 재인용, UN-Habitat,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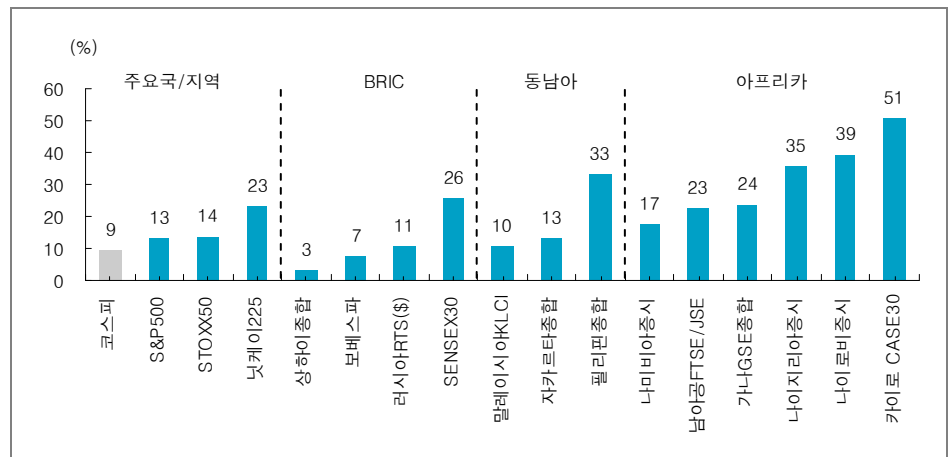
향후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글로벌 저성장 우려를 비롯기라도 하듯 최소 5년간은 성장률 측면에 있어서 만큼은 BRIC시대보다는 아프리카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은 2012년 한해 주식투자자들에게도 큰 보답을 해주었다. [그림 3]에 나온 것 처럼, 아프리카 주요 증시는 출렁임을 겪었던 선진국이나 BRIC 국가 증시와는 달리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내수 잠재력으로 주목을 받은 동남아 증시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었다.

[그림 2] 향후 5년간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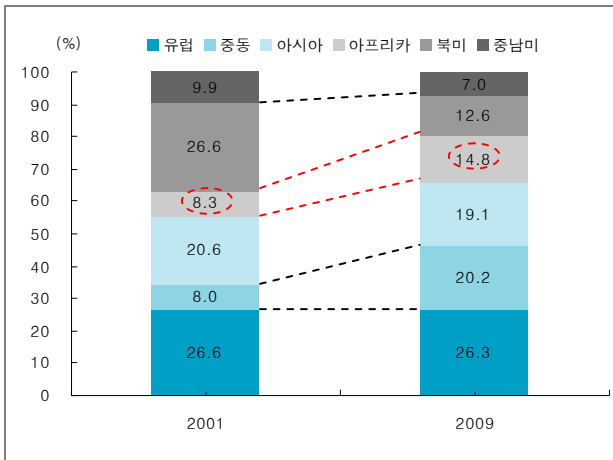
[그림 3] 2012년 글로벌 주요 지수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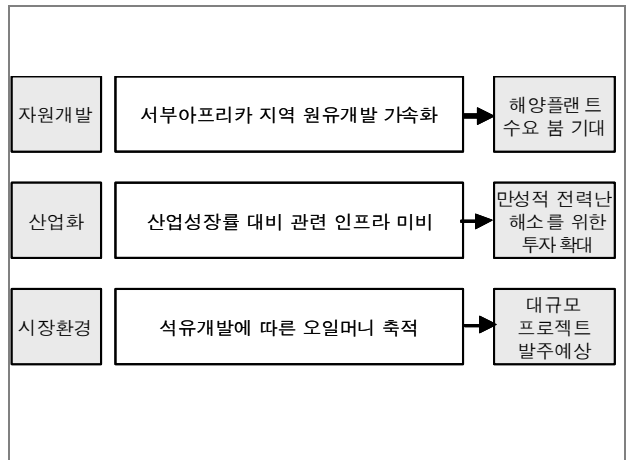
도시화 진행은,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택/오피스 건설 수요, 그리고 물류이동의 편의를 위한 통신, 전기, 수도,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시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부문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개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속되어온 불안한 정치상황으로 식민지 시절 구축된 노후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대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발전략과 공공투자 개발계획은 인프라 확충, 전력사업, 농업개발, 에너지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편 산유국을 중심으로 플랜트 건설수요가 급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국내 건설업체들에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4] 아프리카의 해외 건설시장 비중



주: 세계 225대 해외건설업체 매출액(시공액) 기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아프리카의 플랜트 시장 특성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재인용,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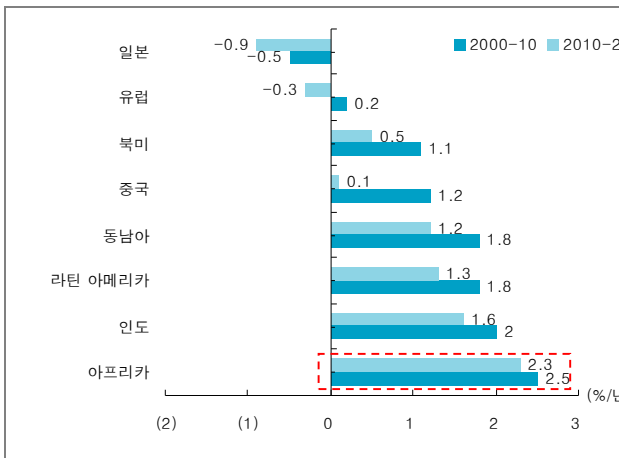
아프리카는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도시화와 더불어 소득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 급증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도시화 수준은 약 40% 정도로 인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며, 2016년에는 인구 1백만명이 넘는 도시수가 2011년 52개에서 2016년에는 65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도시화에 동반된 소비시장의 확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 아프리카 도시의 소비 속도는 농촌의 소비 속도보다 두배가량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 도시 인구의 인당 소비는 해당 국가 전체 기준보다 평균적으로 약 80%가 높으며, 가나의 경우 전체 가구의 29%만이 가처분소득이 5천불 이상인 반면, 수도인 아크라의 55%에 달한다. ▲ 아프리카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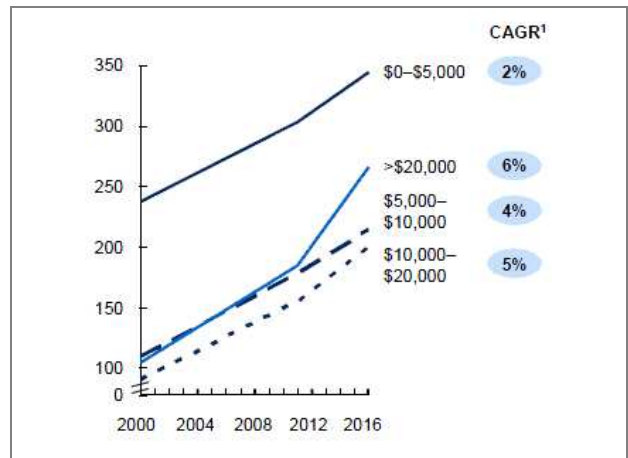
한편 아프리카의 민간소비 규모는 인도나 러시아보다 더 높다고 밝히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소비 관련 산업은 4,1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중 의류, 소비재, 음식료가 1,850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프리카의 모바일 통신 가입자는 연간 20%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아프리카의 모바일 수요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림 6] 두드러지는 노동인구의 증가세



자료: McKinsey,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소득 수준별 총지출 전망



자료: McKinsey, 한국투자증권

■ 자원 확보전쟁과 국내 업체의 기회

다만 아프리카의 빠른 성장에 따른 수혜는 모든 시장 참여자가 공평하게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은 자원 개발이 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이며, 미래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에너지 안보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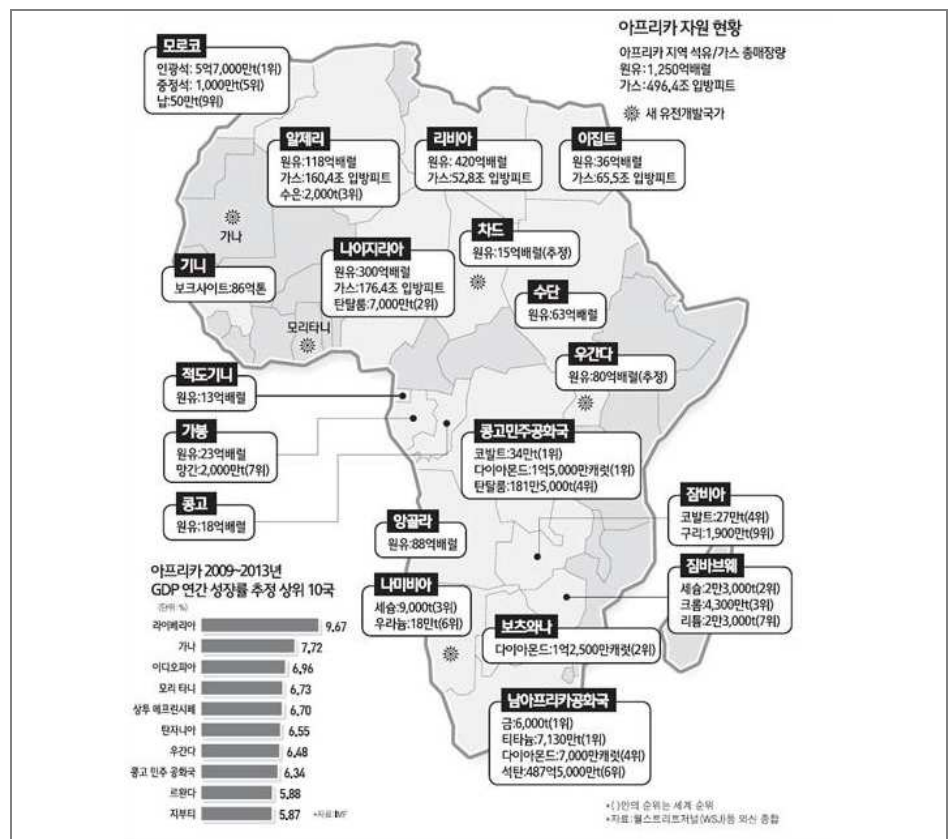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파격적인 차관과 더불어 인프라 건설을 수주하고 자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중국은 1950년 중반 이후로 아프리카와의 우호관계를 지속해왔으며, 고위 인사들 역시 수시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며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한편 대대적인 원조(개발펀드 등)와 더불어 공격적으로 인프라 투자 수주 및 자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 원칙인 '내정 불간섭'은 독재와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현지인 대신 중국 인부들을 동원하면서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으며 반중국 정서가 생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자원 탐식을 견제하기 위해 브라질 역시 건설/에너지/농업/소매 기업들을 앞세워 아프리카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터키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대사관 설치를 늘리고 터키와의 직항노선을 개설했으며, 터키 건설사들은 석유와 가스가 풍부한 서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차원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9월 국토해양부 장관은 열흘동안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여 건설/인프라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해외 건설 수주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어서 10월 기획재정부 2014년까지, 아프리카 ▲ 사회기반시설 구축 ▲ 정보통신 ▲ 인적자원개발 ▲ 농촌개발 녹색성장 ▲ 경제발전경험공유(KSP)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37개 협력사업 등에 5억 9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1월에는 2015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연간 대외경제협력기금(EFCF) 규모를 현행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늘리고, 아프리카와의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진출을 독려키 위한 개발금융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림 8] 아프리카 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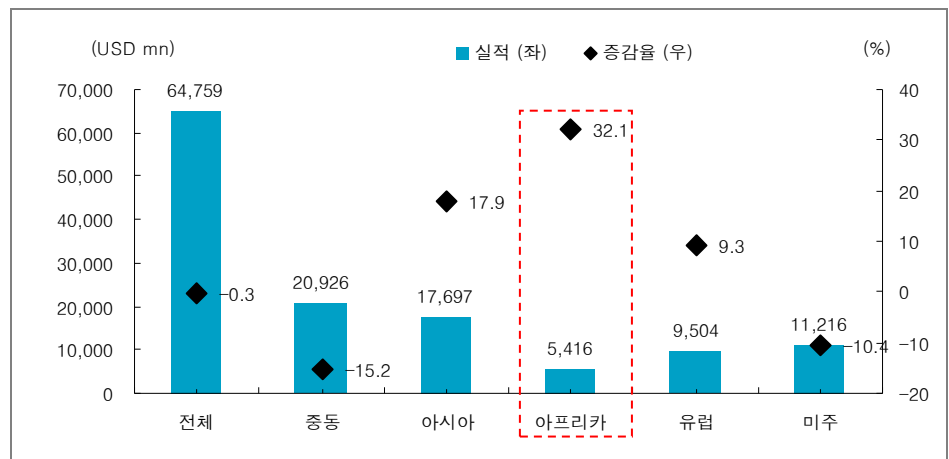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한국투자증권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브라질에 비해서는 후발주자라는 점, 그리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도전하기 쉽지 않고,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화와 기술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하는 기업들은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고, 아프리카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시점에는 이들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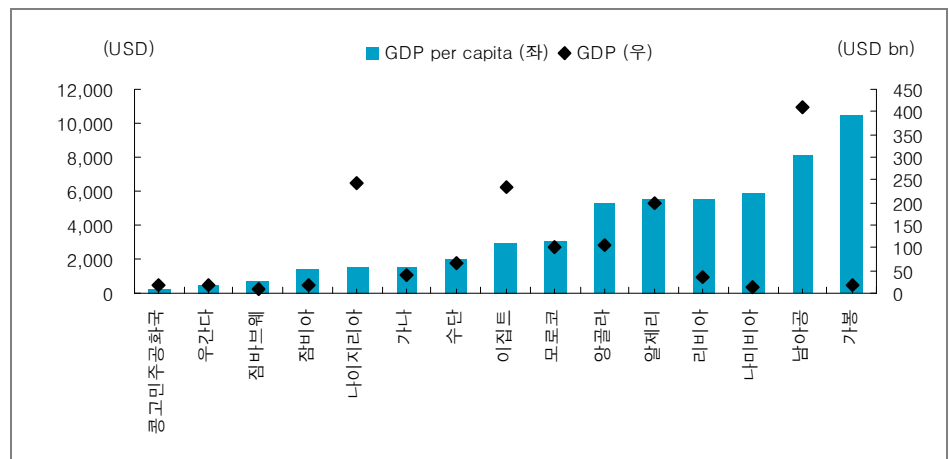
78년부터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이뤄진 아프리카 전반의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우건설(2012.11.21 당사 발간 대우건설 기업분석 보고서 참조), 2008년 변전소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전력시장 물꼬를 튼 LS산전, 자원개발과 플랜트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다지면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수주영역을 넓힌 현대건설 등이 아프리카 스토리와 관련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그림 9] 2012년 국내 플랜트 업계 해외 수주 실적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2011년 아프리카 주요 국가별 GDP 및 1인당 GDP



자료: IMF, 한국투자증권

차익실현으로 금융주 하락, 중화권 증시 약세

- ▶ 중국, 상해B지수 15거래일 연속 상승, 13개월래 최고치 기록 -중증망
- ▶ 중국 상해거래소, 현금배당 가이드 제시, 현금 배당성향 최소 30%
- ▶ 홍콩, 중국 증감회 H주 상장요건 완화 가능성, 만과, 강령, 여주 등 B-H주 전환상장 시도

상해증시 약세 전환
보험 등 금융주 동반 약세
헬스케어, 필수소비재업종은
큰 폭 상승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5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1%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후반 하락폭을 축소했다. 거래금액은 1,064억 위안으로 직전 거래일에 비해 증가했다. 상해종합지수가 지난해 11월말 이후 15% 급등함에 따라 차익실현 압력이 확대됐고 지난 한달 간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금융주에 차익매물이 출회됐다. 특히 최근 태국 Charoen Pokphand Food(CPF)의 평안보험 지분 인수를 지지하던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자금지원 계획을 철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로 평안보험이 급락하며 보험주 약세를 이끌었다. 부동산주는 부동산규제 강화 우려로 장중 하락했으나 반등세로 마감했고 12월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헬스케어, 필수소비재업종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보험(-3.2%), 증권(-1.8%), 은행(-1.7%), 석탄(-0.9%), 석유/천연가스(-0.1%), 제지(-0.1%) 등이 내린 반면 통신장비(+4.8%), IT(+3.1%), 음식료(+2.9%), 헬스케어(+2.4%), 항공(+2.1%), 화학(+1.5%) 등의 업종은 큰 폭의 강세를 기록했다. 한편 상해B지수는 B주에서 H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15거래일째 강세로 마감했다.

■ 홍콩 시장

홍콩 H지수는 2% 넘게 하락했다. 12,000p에 근접한 후 차익매물이 출회되며 지수 낙폭이 확대됐다. 증집그룹에 이어 만과, 강령, 여주 등 다수의 기업들이 B주에서 H주로 전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과 본토기업의 홍콩 IPO 요건 완화 가능성으로 수급우려가 부각됐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지방정부 신탁대출, 은행 부외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신형 도시화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업종별로는 최근 상승폭이 컸던 보험, 증권, 은행 등 금융주가 크게 내렸고 건설, 시멘트, 기계 등 도시화 수혜주의 약세도 두드러졌다. 그 외 자동차, 통신, 석탄, 금속 등 대다수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식품, 전력주는 강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8(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76.07	-0.41	3.18	0.31	0.31
홍콩 H	11,714.15	-2.16	2.43	2.43	2.43
인도 SENSEX	19,707.41	0.08	0.65	1.44	1.44
러시아 RTS	1,575.81	2.97	3.95	3.20	3.20
브라질 보베스파	61,932.54	-0.94	2.51	1.61	1.61
베트남 VN	447.16	2.99	8.08	8.08	8.08
MSCI 이머징마켓	1,075.76	-0.20	1.89	1.95	1.95

주: 8일 오후 6시 2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본격적인 어닝시즌 돌입에 따른 부담감에 나흘째 하락세가 이어지며 코스피 2,000P선 이탈

-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급등에 따른 부담감 및 본격적인 어닝시즌 돌입을 앞두고 불안한 전망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하락세로 마감.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전일 선물 주문 실수에 따른 매물압박과 옵션만기일, 어닝시즌에 대한 부담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나흘 연속 하락, 2,000P선을 이탈하며 마감. 반면, 소폭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의 차익실현 매물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해외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LG생명과학이 10거래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최근 패널업체들간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경쟁이 지속되며 고객사별 LTPS관련 투자규모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된 비아트론이 강세를 보임.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기획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창업투자사들이 일제히 급등했으며, 미국 대법원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허용했다는 판결 소식이 국내 줄기세포 및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임. 반면, 최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경영권 불안정성이 고조된 SDN은 한국기업평가가 신용등급을 세단계 하향 조정하며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LG생명과학(068870) ▶53,900(+4.46%)	해외 사업 본격화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자체 개발한 신약 '제미글로'가 지난해 사노피-아벤티스와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제약 기술의 해외수출 확대 기대감이 고조되며 신고가 경신 - 그동안 연구개발한 프로젝트들의 상업화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경쟁력을 재평가 해야한다는 분석 또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비아트론(141000) ▶15,000(+4.17%)	OELD TV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최근 패널업체들 간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저온폴리실리콘(LTPS) 관련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아울러, 세계 최대 가전쇼 CES가 개막한 가운데 전 세계 OELD TV 시장규모가 올해 5만대에서 2016년 720만대를 돌파, 14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OELD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창업투자주	인수위의 청년창업기획사 추진 소식에 초강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창업기획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초강세 - 대성창투(027830), SBI글로벌(019660), 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 SBI인베스트먼트(019550), 제미니투자(019570), 우리기술투자(041190, 이상 상한가) 등 초강세
줄기세포/바이오 관련주	미국 대법원의 줄기세포 연구 허용 판결에 강세 - 미국 대법원이 논란이 많았던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소식에 급등세 - 삼성엘엔에스(016100, 상한가), 알앤엘바이오(003190, +7.68%), 부광약품(003190, +6.29%), 에스티큐브(052020, +5.38%), 바이넥스(053030, +4.70%)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LG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LG (003550)	67,000 (+0.0)	67,000 (01/03)	-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LG전자가 휴대폰 부문의 실적 개선, OLED TV 출시 등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며, LG화학도 화학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소재 등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견조한 수익성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NAV 대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저평가 매력에 재부각될 가능성 상존
대양전기공업 (108380)	13,200 (+1.9)	12,950 (1/2)	- 선박용 조명기구 전문회사로 해양 플랜트 조명으로 사업영역 확대. 추가로 군함용 통신시스템 및 배전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센서를 신사업으로 추진 - 주력인 선박 조명과 플랜트, 방산 등 전 분야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용 압력 센서에 대한 국내 완성차업체의 국산화 의지와 맞물려 2013년부터 가시적인 성과 기대
MDS테크 (086960)	13,250 (-1.9)	13,500 (1/2)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OS, 애플리케이션, 개발툴) 전문업체로 차량 및 국방/항공 분야 I T융합 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 4분기에는 계절성(연말 고객사 SW관련 예산 소진)과 더불어 현대오트론 등 자동차 전자회사향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성장성, 기술 경쟁력, 진입장벽 등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동일금속 (109860)	13,250 (-2.6)	13,600 (1/2)	- 크롤러크레인 트렉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트렉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독창적 아이টে็ม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제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375 (-5.7)	4,640 (1/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5,000 (+9.1)	13,750 (1/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농심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농심 (004370)	289,000 (+6.3)	272,000 (01/03)	2,148	133	128	22,127	13.1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LS (006260)	94,300 (-0.7)	95,000 (1/2)	13,604	596	356	12,829	7.4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코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성전자 (005930)	1,500,000 (-4.8)	1,576,000 (1/2)	230,152	34,702	27,841	184,578	8.1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37,000 (+4.2)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17.9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303,000 (+0.3)	302,000 (1/2)	3,731	271	264	26,935	11.2
			- 2012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25,500 (-4.3)	340,000 (1/2)	24,430	2,296	1,740	23,666	13.8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NHN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미디어 · 광고: 13년에도 기대되는 미디어, 음악 업종 수익률

■ 13년에도 미디어 업종 시장 대비 초과 상승 예상

12년 미디어 · 광고 업종의 수익률은 29%로 시장 대비 20%p 초과 상승했다. 현재 12개월 forward PER은 13.7배이고 11년말 미디어 업종의 주가 랠리 기간의 최고 PER은 20배 수준이었다. 13년 미디어 · 광고 업종은 업종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11년 수준까지 valuation re-rating이 가능하며 시장을 초과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디지털 전환 확산, 스마트 디바이스 확산, 플랫폼 다양화 등에 따라 콘텐츠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 드라마, 음악, 영화 등의 한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의 정책도 콘텐츠 산업 규모의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3) 지상파 광고 규제가 추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음악 산업 종목의 주가 수익률이 2년 연속 가장 높아, 13년에는?

미디어 업종을 크게 플랫폼(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현대HCN), 콘텐츠(SBS, CJ E&M, YTN, SBS콘텐츠허브, 제일기획). 음악(에스엠, 와이지, 로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11년에는 연초 대비 각각 1.6%, 3.2%, 156.6%, 12년에는 각각 31.5%, 17.9%, 39.3% 상승했다. 2년 연속 음악 산업에 포함된 종목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에스엠, 와이지의 해외 성장성, 아티스트 모멘텀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이다.

13년에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실적 개선, 경기 방어적 성격, 원화 강세 피해, 장기 성장성, valuation을 조건으로 판단해보면 음악 ≧ 플랫폼 ≧ 콘텐츠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악 산업 종목은 원/100엔 환율 하락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일본 및 그 외 지역에서 활동을 더 많이 늘어나고 신규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성장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플랫폼 산업 업체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가입자 및 홈쇼핑송출수수료 증가로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으나 경쟁 상황에 따라 업체 별로 주가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콘텐츠 산업 종목은 국내외 콘텐츠 수요 증가의 수혜가 예상되지만 광고 시장 개선 정도에 따라 실적의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다.

■ 12년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스카이라이프, HCN, 에스엠, 와이지, 로엔

12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스카이라이프, HCN, 에스엠, 와이지, 로엔 정도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은 스카이라이프, 와이지, 에스엠 순으로 전망된다. CJ E&M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하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디어 · 광고 업종의 13년 유망 종목은 가입자 증가 &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스카이라이프, 아티스트 활동 모멘텀이 증가하고 해외 실적 비중이 커지는 와이지로 제시한다. 또한 MBC 민영화 가능성,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재원 축소, 케이블 - 지상파와의 재송신 협상, 지상파 드라마의 자체 제작 증가 등의 이유로 지상파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대한통운(000120)

매수(유지)

목표가: 130,000원(유지)

종가(1/7): 107,500원

CJ GLS를 흡수 합병, 단기 주가에 긍정적

■ CJ대한통운이 CJ GLS를 흡수 합병

CJ 그룹의 물류계열사인 CJ 대한통운과 CJ GLS가 4월 1일자로 합병한다. CJ대한통운은 어제 CJ GLS와 1:0.3337633의 비율로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CJ GLS의 최대주주인 CJ가 보유한 CJ GLS의 주식을 물적 분할해 KX홀딩스를 설립하고, CJ 대한통운이 KX 홀딩스에 자사주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합병 후 CJ대한통운의 지분구조는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각각 20.1%를 보유하고, 대우건설(5.3%), 아시아나항공(5.0%) 등으로 구성된다. CJ그룹은 2개의 물류자회사를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지주회사규정을 어기지 않고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KX홀딩스라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양사를 합병하는 방식을 택했다. 양사가 직접적으로 합병했다면 지주회사 규정상 대한통운과 GLS의 주주인 CJ와 CJ제일제당 중 한 회사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 복잡해 보이지만 비용이 적게 투입된 효율적인 합병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을 진행하다 보니 합병 과정이 매우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대한통운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자사주 13,558주와 현금 339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연 매출 1.8조원의 물류회사를 흡수 합병 하는 것이다. 대한통운은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중 459만 4,819주를 KX홀딩스와 소액주주에 넘기는데, CJ GLS를 흡수합병 하면서 CJ GLS가 보유한 대한통운 주식(458만 1,261주)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 자사주는 13,558주만 넘겨주는 셈이 되며, 합병 후 대한통운은 과거와 비슷한 규모의 자사주(540만 9,861주)를 보유하게 된다.

■ 가격협상력 제고, 브랜드 파워 상승 등 시너지 기대

CJ GLS는 물류 소프트웨어와 해외 물류 네트워크 운영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비자산형 물류업체'이며, 대한통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산형 물류업체'다. 이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택배부문에서 약 38%의 시장점유율을 가져가는 초대형 택배업체가 탄생한다는 의미가 있고(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11%), 양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충족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에서 공시한 합병 후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투자지표를 계산해 보면 대한통운의 주식 수는 변하지 않는데 양사의 합산 이익은 늘어나므로 PER은 17.6배에서 14.2배로 하락하며, PBR도 0.8배에서 0.7배로 내려간다. 합병 후 부채비율은 합병 전보다 상승한다(62%에서 84%로 상승). 합병 후의 EPS와 BPS를 합병 전인 현재 PER 및 PBR에 적용해 보면 적정가치가 각각 132,931원, 120,836원으로 산정되며 이를 평균하면 126,883원이 산출된다. 이번 합병 이슈는 단기 투자심리에 긍정적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2,464	174	128	98	6,092	3,755.9	240	15.5	11.1	0.8	4.9
2011A	2,588	123	43	84	4,858	(20.3)	197	15.4	9.5	0.6	3.9
2012F	2,791	157	135	106	6,110	25.8	241	16.4	10.9	0.8	4.5
2013F	3,120	179	159	124	7,123	16.6	276	15.1	10.8	0.8	4.8
2014F	3,495	201	174	135	7,777	9.2	311	13.8	10.1	0.8	5.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백화점(069960)

매수(유지)

목표가: 187,000원(유지)

종가(1/7): 166,000원

4Q12 Preview: 턀어라운드, 개선폭은 더 확대될 전망

■ 4Q12 턀어라운드

현대백화점의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266억원(+6% YoY)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을 전년동기대비로 비교해보면 2분기와 3분기 연속해서 줄어들다가 4분기에 상승 반전되는 것이다. 기존점매출은 10월 까지 감소하다가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4분기 기존점매출증가율은 우리 추정치보다 소폭 높은 3%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추운 날씨로 인해 의류, 잡화 등 방한 용품 매출이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 base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 실적 개선폭은 확대될 전망

계속되는 추위로 인해 1분기 매출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며,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기저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기존점매출증가율은 각각 -0.4%, -4.4%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증감률은 각각 +4%, -7%를 기록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현대백화점의 주력 점포인 무역센터점의 영업면적 확대(+52%)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무역센터점의 리뉴얼과 MD개편에 따른 매출 증가폭은 1분기에서 3분기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며 영업이익 기여도 또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87,000원 유지

한파로 인한 매출 증가가 반영되면서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2012년 10월말부터 현재까지 시장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반락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승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 현대백화점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분기 실적 모멘텀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는 2013F PER 10.5배이다. 목표주가 187,000원을 유지한다. 향후 6개월 내 예상되는 기존점매출증가율은 5% 수준이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2013F PER 12.0배로 산출되었다. 향후 한파 영향을 뛰어넘는 매출 증가가 나타나거나, 소비심리 개선 및 가치분소득 증가에 따른 구조적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경우 실적 추정치 상향 및 multiple 조정으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271	392	520	336	17,819	41.7	453	7.8	8.1	1.5	17.9
2011A	1,439	450	561	346	15,183	(14.8)	528	10.7	8.6	1.5	15.4
2012F	1,544	447	505	328	14,260	(6.1)	538	11.2	8.2	1.3	12.5
2013F	1,760	513	569	370	16,079	12.8	616	10.6	7.4	1.2	12.3
2014F	1,890	551	607	395	17,158	6.7	666	9.9	6.5	1.1	11.4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 E&M(130960)

매수(유지)

목표가: 36,000원(유지)

종가 (1/7): 30,900원

13년 방송 부문 영업 레버리지, 게임·영화 흥행 기대감 높아져

■ 13년 실적 개선 기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매수의견 유지

CJ E&M의 12년 주가는 연초 대비 12.8% 하락했다. 12년에 게임 부문의 영업적자 전환, 음악 부문 투자 확대에 따른 적자폭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가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 현재 강화되는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수요 증가, 한류의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의 컨셉에 가장 적절한 업체 중 하나로 평가 받으면서 주가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12년 7월말 바닥을 다진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최근 주가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3년 PER이 21배로 높은 것은 부담으로 작용해 주가의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1) 방송 부문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2) 게임 및 음악 부문 적자폭 감소, 3) 영화 흥행 지속 등이 13년 영업이익이 89.3%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CJ E&M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6,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BITDA에 목표 EV/EBITDA 3.8배(해외 업체의 평균 40%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1) 방송 이익 확대

방송 부문이 주도하는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13년 방송 부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로 광고수익이 전년 대비 9.0% 증가하고 디지털 방송 가입자 증가로 수신료 수익도 6.8%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가입자 증가, 플랫폼 다양화, 수요 증가 등으로 콘텐츠 재판매가 확대돼 13년부터 방송 부문의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 13년 상반기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콘텐츠가 판매되기 때문에 재판매 매출액은 향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방송 제작비 증가율이 둔화되며(12년, 13년 제작비 증가율은 각각 18%, 12%로 예상) 1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게임 적자폭 축소

‘서든어택’ 매출기여도 감소와 신규 게임 출시가 지연되며 게임 부문 부진이 지속됐지만 12년 말부터 13년에 ‘차구차구’, ‘하운즈’, ‘마케촌 온라인’, ‘모나크’, ‘Zipi 레이싱’ 등의 신규 게임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며 13년 게임 부문은 영업적자 6억원으로 12년 75억원 영업적자 대비 적자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규 게임 매출액이 증가하고 개발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마케팅 비용 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다함께 차차차’ 등을 바탕으로 13년에 모바일 게임 40여개가 출시되며 게임 부문 실적은 12년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98	19	18	6	1,210	0.0	51	28.5	10.0	0.6	1.9
2011A	1,143	70	63	57	1,765	45.8	362	17.2	3.7	1.0	7.7
2012F	1,384	40	25	50	1,330	(24.6)	330	19.9	3.6	0.8	4.2
2013F	1,530	76	75	56	1,479	11.2	365	20.9	3.5	0.9	4.5
2014F	1,659	98	99	74	1,970	33.2	404	15.7	2.9	0.9	5.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28(금)	01/02(수)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97.05	2,031.10	2,019.41	2,011.94	2,011.25	1,997.94
	등락폭	9.70	34.05	-11.69	-7.47	-0.69	-13.31
	등락종목						
	상승(상한)	479(7)	545(10)	443(6)	419(10)	393(10)	370(12)
	하락(하한)	314(1)	277(2)	376(1)	377(0)	398(1)	430(1)
	ADR	102.22	102.28	102.56	105.25	106.00	106.25
	이격도						
	10 일	100.34	101.91	101.20	100.68	100.55	99.89
	20 일	101.38	102.86	102.04	101.48	101.25	100.45
	투자심리	70	70	70	70	6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291	360	485	373	533	490
	거래대금 (십억 원)	3,188	4,400	5,988	4,677	3,942	3,904
	코스닥지수	496.32	501.61	499.07	504.84	508.72	509.01
	등락폭	4.24	5.29	-2.54	5.77	3.88	0.29
	등락종목						
	상승(상한)	606(12)	650(17)	429(14)	566(12)	529(10)	436(12)
	하락(하한)	306(1)	293(2)	500(1)	326(2)	390(0)	481(1)
	ADR	94.81	97.82	96.95	100.50	101.82	105.66
	이격도						
	10 일	102.07	102.91	102.24	103.01	103.26	102.70
	20 일	101.39	102.42	101.90	103.02	103.74	103.67
	투자심리	50	50	40	50	60	70
	거래량 (백만 주)	324	338	384	395	412	426
	거래대금 (십억 원)	1,486	1,490	1,728	1,862	1,804	1,73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50.2	1,158.6	784.0	220.2	101.3	212.7	33.4	25.5	165.1	38.3
	매도	1,871.1	1,109.4	901.5	196.7	130.2	280.5	47.6	24.2	190.2	49.1
	순매수	79.1	49.2	-117.5	23.4	-28.9	-67.8	-14.2	1.4	-25.1	-10.8
	01 월 누계	-105.8	355.6	-231.8	54.0	142.8	-346.6	-60.7	12.0	0.2	-18.1
	13 년 누계	-105.8	355.6	-231.8	54.0	142.8	-346.6	-60.7	12.0	0.2	-18.1
코스닥	매수	1,580.8	80.1	81.9	11.9	10.8	29.1	4.3	2.6	21.4	13.4
	매도	1,596.1	73.1	72.5	10.2	8.7	20.0	3.4	7.0	20.9	14.5
	순매수	-15.3	6.9	9.4	1.7	2.2	9.1	0.9	-4.5	0.5	-1.0
	01 월 누계	-28.1	4.2	36.3	12.1	12.9	15.0	3.4	-5.5	0.2	-12.4
	13 년 누계	-28.1	4.2	36.3	12.1	12.9	15.0	3.4	-5.5	0.2	-12.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3,782	서비스업	-15,988
의약품	3,669	운수장비	-12,607
종이, 목재	1,675	철강및금속	-10,355
호남석유	6,093	SK이노베이션	-9,744
현대모비스	5,035	현대제철	-9,307
LG전자	4,014	LG화학	-7,049
신한지주	4,002	기아차	-6,222
한화케미칼	2,682	현대중공업	-5,883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12,910	화학	-17,933
의약품	6,019	철강및금속	-13,265
운수장비	4,480	유통업	-12,194
KT	7,827	현대중공업	-7,241
SK텔레콤	5,088	S-Oil	-6,213
현대모비스	3,730	POSCO	-6,176
녹십자	3,685	삼성전자	-4,597
현대위아	3,615	한국전력	-4,20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965	통신업	-3,735
철강및금속	3,163	전기, 전자	-1,572
운수장비	2,352	운수참고	-960
POSCO	2,186	KODEX 레버리지	-5,795
삼성정밀화학	2,132	SK텔레콤	-3,365
현대모비스	1,609	LG전자	-2,477
삼성전자	1,338	한세실업	-1,012
S-Oil	1,247	GS건설	-85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3,667	서비스업	-11,345
운수참고	1,985	화학	-7,821
전기가스업	1,858	음식료품	-7,793
현대모비스	9,848	삼성전자	-7,467
TIGER 200	5,246	현대제철	-6,825
KINDEX200	5,138	S-Oil	-5,394
현대차	4,476	CJ제일제당	-5,364
KODEX 200	4,127	SK이노베이션	-4,50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2,932	철강및금속	-36,605
의약품	12,710	화학	-31,720
운수참고	8,023	건설업	-27,655
현대모비스	24,509	현대제철	-25,468
KODEX 인버스	5,493	KODEX 레버리지	-23,790
KT	5,227	S-Oil	-13,657
LG전자	4,764	삼성전자	-13,593
삼성화재	4,187	GS건설	-13,370
한국가스공사	4,133	TIGER 200	-13,328
한솔제지	4,073	LG화학	-11,889
호남석유	3,958	KODEX 200	-9,059
현대위아	3,880	넥센타이어	-8,492
현대글로비스	3,819	현대건설	-8,36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35,405	전기, 전자	-86,051
금융업	23,228	보험	-7,465
건설업	20,927	의약품	-4,073
현대차	20,556	삼성전자	-81,904
하나금융지주	17,322	LG디스플레이	-32,604
현대건설	15,870	현대모비스	-16,672
KT&G	13,038	KODEX 레버리지	-12,478
S-Oil	12,016	삼성중공업	-10,529
삼성SDI	10,296	SK이노베이션	-9,334
삼성전기	8,588	CJ제일제당	-4,702
삼성물산	8,055	한미약품	-3,959
KODEX 인버스	7,979	동부화재	-3,579
LG생활건강	7,583	현대해상	-3,53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3,331	오락,문화	-1,210
IT부품	2,267	기계,장비	-706
전문기술	1,429	운송장비,부품	-403
하나투어	2,825	파라다이스	-1,089
게임빌	1,364	위메이드	-616
CJ E&M	1,351	인터플렉스	-551
다음	1,269	골프존	-443
옵트론텍	1,162	솔브레인	-33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2,697	인터넷	-4,500
출판,매체복제	1,521	사업지원	-2,307
계약	1,324	디지털컨텐츠	-1,724
CJ E&M	2,567	다음	-4,500
에스엠	1,573	컴투스	-2,538
메디톡스	1,329	하나투어	-2,125
서울반도체	780	플렉스컴	-1,572
에스맥	756	파라다이스	-85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연구,개발	417	인터넷	-4,274
계약	178	의료,정밀기기	-940
디지털컨텐츠	169	금속	-184
바이로메드	417	다음	-4,253
게임빌	220	뷰웍스	-957
씨젠	146	케이피에프	-156
파라다이스	114	네패스	-104
파트론	97	슈프리마	-10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1,625	운송장비,부품	-956
기계,장비	980	IT부품	-948
디지털컨텐츠	972	금속	-498
게임빌	1,251	성우하이텍	-596
메디톡스	1,192	에버다임	-523
나노신소재	714	인터플렉스	-431
하나투어	676	엠에스오토텍	-420
에스에프에이	541	에이블씨엔씨	-369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5,520	인터넷	-7,340
계약	5,008	IT부품	-2,612
사업지원	2,234	오락,문화	-1,588
CJ E&M	5,117	다음	-7,319
게임빌	4,214	컴투스	-2,621
메디톡스	3,110	플렉스컴	-1,798
에스엠	2,370	인터플렉스	-1,761
옵트론텍	2,039	차바이오앤	-1,557
하나투어	1,837	파라다이스	-1,311
코오롱생명과학	1,533	네패스	-1,293
SK브로드밴드	1,389	셀트리온	-1,245
오스템임플란트	1,114	성우하이텍	-1,230
씨젠	1,003	위메이드	-84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8,631	반도체	-4,151
도매	2,898	계약	-2,626
사업지원	2,145	금속	-2,421
다음	8,597	루멘스	-2,610
동서	2,591	성광벤드	-2,170
게임빌	1,357	서울반도체	-1,963
모두투어	1,116	파트론	-1,589
KH바텍	1,048	파라다이스	-1,431
하나투어	1,038	차바이오앤	-1,308
코나아이	969	코미팜	-1,258
CJ오쇼핑	936	CJ E&M	-679
제이브이엠	757	KG모빌리언스	-572
유진테크	623	에버다임	-56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20 일	현대건설	26 일	이트레이드증권	14 일	메가스터디	21 일
에너지화학				테크노세미켐	10 일	다음	10 일
미래에셋증권	19 일	동부제철	25 일	동서	8 일	엘앤에프	9 일
웅진코웨이	16 일	LG화학	25 일	에스에프에이	8 일	DMS	9 일
진로	13 일	BS금융지주	25 일	비에이치아이	8 일	에스엔유	9 일
TIGER	13 일	경방	19 일	포스코켄텍	6 일	동서	7 일
원유선물(H)				인터파크	4 일	에이테크솔루션	7 일
우리금융	12 일	대한생명	18 일	하나투어	4 일	디지털시스템	5 일
LG생명과학	12 일	현대증권	15 일				
대상	8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TIGER	유동자금	77,373	SK하이닉스	67,190	하나투어	10,906	다음	37,392
POSCO		65,906	현대건설	53,882	CJ E&M	10,041	동서	4,159
삼성증권		51,235	삼성물산	31,717	에스엠	9,152	셀트리온	2,593
대한항공		41,537	대림산업	13,953	SK브로드밴드	4,562	원스टे크넷	2,280
OCI		40,944	두산	6,109	에스에프에이	4,527	메가스터디	1,990
신한지주		26,462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4,619	솔브레인	3,188	유진테크	1,787
한국전력		25,342	영풍	1,068	일진에너지	2,573	코미팜	1,704
한화케미칼		25,071	하이트진로	954	옵트론텍	2,451	모두투어	1,629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12,932	3,139	16,071	사업지원	2,234	2,145	4,379
통신업	6,362	7,560	13,922	도매	565	2,898	3,463
섬유,의복	2,268	1,802	4,070	디지털컨텐츠	1,223	1,221	2,444
KODEX 인버스	5,493	7,979	13,472	게임빌	4,214	1,357	5,571
LG생활건강	3,412	7,583	10,995	메디톡스	3,110	161	3,271
SK하이닉스	2,327	7,287	9,614	하나투어	1,837	1,038	2,876
LG전자	4,764	4,497	9,262	동서	10	2,591	2,602
OCI	2,172	4,312	6,484	KH바텍	448	1,048	1,496
LG생명과학	3,386	2,632	6,018	모두투어	268	1,116	1,383
SK텔레콤	384	5,508	5,892	씨젠	1,003	119	1,122
호남석유	3,958	955	4,913	CJ오쇼핑	145	936	1,081
LG	1,372	3,472	4,844	에스맥	565	156	721
만도	3,795	1,044	4,839	웰크론한텍	561	126	68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경방	10 일	LS산전	8 일	KCC건설	18 일	성광벤드	13 일
TIGER 금은선물(H)	9 일	기아차	7 일	씨애헤이인터	17 일	동진세미켄	8 일
KODEX 은선물(H)	9 일	KODEX 철강	7 일	우주일렉트로	6 일	성우하이텍	8 일
STX	8 일	TIGER 레버리지	6 일	동국산업	5 일	SBS콘텐츠허브	8 일
S&T대우	8 일	대우인터네셔널	5 일	심텍	5 일	실리콘웍스	6 일
TIGER 경기방어	8 일	삼성화재	4 일	인터플렉스	5 일	네패스	5 일
TIGER 자동차	8 일	종근당	4 일	SK컴즈	5 일	AP시스템	4 일
기아차	7 일	대상	4 일	크레듀	5 일	쌍용건설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기아차	-122,118	기아차	-118,444	다음	-12,023	성광벤드	-11,316
삼성전자	-110,297	삼성화재	-18,668	성우하이텍	-7,156	하나투어	-7,993
KODEX 200	-59,079	CJ대한통운	-3,278	성광벤드	-6,296	파라다이스	-5,411
LG화학	-57,148	유한양행	-984	인터플렉스	-4,760	컴투스	-4,731
TIGER 200	-49,344	메리츠화재	-830	멜파스	-4,393	서울반도체	-4,332
현대위아	-44,045	동아제약	-467	씨젠	-3,666	에이블씨엔씨	-4,036
삼성전기	-43,129	가온전선	-293	심텍	-2,930	루멘스	-2,790
고려아연	-39,306	유유제약	-232	에이블씨엔씨	-2,755	매일유업	-2,178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2,308	-86,051	-108,359	반도체	-479	-4,151	-4,630
서비스업	-10,663	-1,115	-11,778	오락,문화	-1,588	-1,566	-3,154
섬유,의복	2,268	1,802	4,070	금속	-168	-2,421	-2,589
삼성전자	-13,593	-81,904	-95,498	차바이오앤	-1,557	-1,308	-2,865
KODEX 레버리지	-23,790	-12,478	-36,268	컴투스	-2,621	-167	-2,788
LG디스플레이	-1,078	-32,604	-33,682	파라다이스	-1,311	-1,431	-2,742
TIGER 200	-13,328	-598	-13,926	파트론	-186	-1,589	-1,775
넥센타이어	-8,492	-2,548	-11,040	셀트리온	-1,245	-415	-1,660
SK이노베이션	-1,404	-9,334	-10,738	네패스	-1,293	-259	-1,552
KODEX 200	-9,059	-338	-9,397	성우하이텍	-1,230	-20	-1,249
CJ제일제당	-3,979	-4,702	-8,681	에버다임	-527	-566	-1,092
엔씨소프트	-3,919	-3,055	-6,974	하이룩코리아	-11	-445	-456
기아차	-3,810	-2,228	-6,038	제이콘텐트리	-261	-188	-44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LG디스플레이	461	13,856
기아차	133	7,149
현대차	27	5,671
KT&G	64	4,900
LG전자	49	3,847
엔씨소프트	23	3,661
삼성전자	2	3,116
SK하이닉스	101	2,63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CJ E&M	53	1,621
셀트리온	60	1,576
다음	10	990
에스엠	21	973
로엔	38	573
아가방컴퍼니	54	538
컴투스	10	510
유비케어	153	500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03	5,324,276
POSCO	9,191	3,391,431
LG전자	38,275	3,012,234
OCI	8,928	1,633,866
NHN	3,551	852,192
현대차	3,783	788,741
현대중공업	2,664	643,458
SK하이닉스	22,695	587,80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6,583	692,495
서울반도체	5,733	144,476
덕산하이메탈	3,061	69,335
에스엠	1,475	67,837
다음	503	52,158
멜파스	1,683	43,254
게임빌	385	39,111
위메이드	819	36,834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11,785	통신업	-417
화학	9,457	의료정밀	66
운수장비	8,640	종이, 목재	169
LG전자	4,940	KEC	-1,104
한화케미칼	4,429	KODEX 200	-885
신한지주	4,228	대한항공	-643
우리금융	3,584	KT	-498
한진해운	3,274	남선알미늄	-327
삼성물산	2,844	기업은행	-319
외환은행	2,527	안국약품	-232
KB금융	2,424	KODEX 운송	-220
삼성증권	2,194	현대상선	-179
삼성중공업	1,819	보루네오	-16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2,551	컴퓨터서비스	-62
IT부품	2,506	통신서비스	-61
금융	1,525	육상운송	-4
한국토지신탁	1,525	포스코엡텍	-246
셀트리온	969	안국약품	-232
덕산하이메탈	877	포스코 ICT	-149
텍셀네트컴	821	MDS테크	-94
서울반도체	621	AJS	-73
서희건설	557	에프티이앤이	-67
루멘스	549	SK브로드밴드	-62
네오퍼플	464	동서	-41
멜파스	463	파워로직스	-38
파라다이스	454	에이블씨엔씨	-27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02(수)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외국인	355.6	355.6	355.6	173.6	111.5	50.4	-34.7	49.2
기관계	-231.8	-231.8	-231.8	76.4	-70.0	-137.6	14.3	-117.5
(투신)	-346.6	-346.6	-346.6	58.8	-155.6	-130.2	-46.3	-67.8
(연기금)	20.7	20.7	20.7	18.0	73.8	-42.7	-4.5	-23.9
(은행)	12.0	12.0	12.0	7.0	19.3	-3.8	-11.8	1.4
(보험)	142.8	142.8	142.8	83.9	62.2	-13.5	36.4	-28.9
개인	-105.8	-105.8	-105.8	-252.5	-44.6	95.0	25.6	79.1
기타	-18.1	-18.1	-18.1	2.5	3.1	-7.8	-5.1	-10.8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2/28(금)	01/02(수)	01/03(목)	01/04(금)	01/07(월)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97.05	2,031.10	2,019.41	2,011.94	2,011.25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8014.3	18052.2	18187.5	18031.7	17673.1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11.6	37.9	135.3	-155.8	-358.6
(회전율)	52.6	51.5	34.2	26.7	33.1	43.1	37.1	33.0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358.8	-119.9	-16.2	-414.4	-415.6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3912.4	3903.9	3896.0	3913.1	3935.9
미수금	240.2	192.3	187.7	124.1	127.1	123.2	140.8	166.8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28(금)	01/02(수)	01/03(목)	01/04(금)	01/07(월)
전체 주식형	94,228	-485	-485	64	-45	-244	-196	-38
(ex. ETF)		-656	-656	64	-158	-256	-138	-104
국내 주식형	68,210	-426	-426	55	-24	-230	-173	-13
(ex. ETF)		-576	-576	55	-137	-241	-114	-83
해외 주식형	26,018	-59	-59	8	-21	-15	-24	-25
(ex. ETF)		-80	-80	8	-21	-15	-24	-21
주식 혼합형	9,933	-75	-75	1	-10	-40	-8	-18
채권 혼합형	19,110	-83	-83	-20	-149	81	-14	-2
채권형	47,284	59	59	6	-324	217	159	7
MMF	71,088	7,947	7,947	-629	505	3,027	3,194	1,22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1/02(수)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한 국	331	331	1,569	163	105	53	-33	42
대 만	-381	-381	1,238	224	38	-209	-198	-236
인 도	898	898	1,619	256	265	-	-	-
인도네시아	214	214	870	9	69	51	85	-
태국	208	208	656	24	11	92	80	-
남아공	351	351	448	26	125	184	16	-
필리핀	97	97	97	5	20	31	42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2/28(금)	01/02(수)	01/03(목)	01/04(금)	01/07(월)	01/08(화)
회사채 (AA-)	4.21	3.29	3.30	3.25	2.88	3.25	3.23
회사채 (BBB-)	10.01	8.80	8.81	8.75	8.73	8.74	8.73
국고채 (3년)	3.34	2.82	2.82	2.77	2.74	2.76	2.74
국고채 (5년)	3.46	2.97	2.98	2.91	2.89	2.89	2.87
국고채 (10년)	3.79	3.16	3.19	3.13	3.13	3.10	3.05
미 국채 (10년)	1.88	1.76	1.84	1.91	1.90	1.90	-
일 국채 (10년)	0.99	0.80	0.79	0.79	0.83	0.83	-
원/달러	1,151.80	1,070.60	1,063.50	1,061.50	1,063.60	1,063.70	1,063.00
원/엔	1,492.00	1,238.41	1,291.00	1,218.00	1,206.00	1,211.00	1,217.00
엔/달러	77.24	86.45	87.24	87.16	88.23	87.84	87.37
달러/유로	1.29	1.32	1.32	1.31	1.30	1.30	1.31
DDR3 1Gb (1333MHz)	0.64	0.67	0.67	0.68	0.68	0.68	-
NAND Flash 16Gb (MLC)	2.81	1.89	1.89	1.89	1.90	1.90	-
CRB 지수	305.30	295.01	297.54	295.65	294.13	295.23	-
LME 지수	3,306.0	3,454.5	3,581.7	3,539.6	3,488.9	3,476.7	-
BDI	1,738	699	698	700	706	712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91.82	93.12	92.92	93.09	93.19	-
금 (달러/온스)	1,566.80	1,663.40	1,663.40	1,679.70	1,648.90	1,645.8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3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월 2일	269.16	271.20	1.51	2.04	2.35	135,205	116,629	5,136
1월 3일	267.52	269.80	1.48	2.28	2.70	194,515	115,641	-988
1월 4일	266.14	268.10	1.45	1.96	2.72	186,039	115,712	71
1월 7일	265.97	268.20	1.39	2.23	2.35	240,444	135,247	19,535
1월 8일	263.95	265.40	1.37	1.45	2.26	229,235	116,273	-18,974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월 2일	2,150	-1,332	-1,030	-1,848	187	257	316	-5
1월 3일	-3,525	3,026	668	2,411	-1,454	-194	9	11
1월 4일	-2,474	1,283	1,266	1,246	-221	25	-199	0
1월 7일	9,094	-2,511	-6,094	-4,477	-1,137	-143	-94	0
1월 8일	-14,650	6,827	7,551	5,477	1,252	223	130	-4
누적포지션	-5,737	9,618	-3,885	1,507	-5,884	556	-230	160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월 2일	541	848	306	529	798	269	12	49	38	5,718	11,744
1월 3일	975	1,326	351	964	1,166	202	11	160	149	5,692	11,854
1월 4일	675	1,140	465	662	1,028	366	13	113	100	5,680	11,942
1월 7일	650	767	118	638	740	102	11	27	16	5,175	11,520
1월 8일	674	780	106	609	753	145	66	27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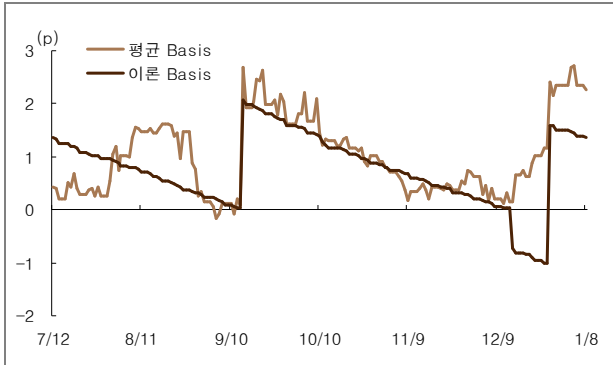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26.73	4,075	18,691	0.01	277.50	13.60	69	0	36.54
24.42	96	81,133	0.02	275.00	11.20	647	-39	35.91
21.78	185	179,008	0.04	272.50	8.75	2,949	-246	31.26
20.37	6,250	343,537	0.12	270.00	6.30	11,652	-529	25.63
19.41	9,586	406,962	0.37	267.50	4.05	85,867	-400	22.55
18.55	2,792	277,209	1.00	265.00	2.18	352,142	-1,346	20.82
18.72	2,122	40,675	2.32	262.50	0.91	430,283	-4,167	19.84
17.75	237	5,981	4.20	260.00	0.35	264,465	-3,842	20.95
5.00	146	1,406	6.45	257.50	0.12	188,999	-352	22.15
5.00	-64	192	8.95	255.00	0.05	76,109	-862	24.45
5.00	-11	29	11.30	252.50	0.03	30,447	378	2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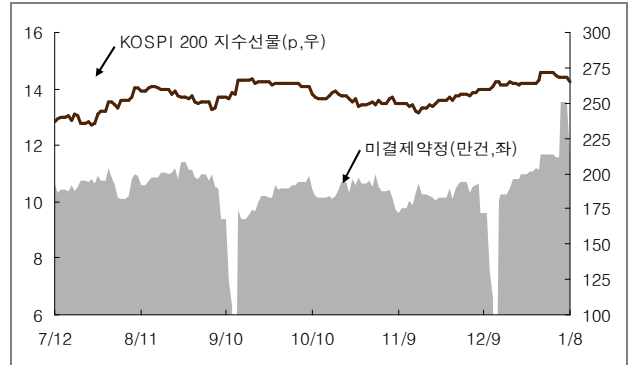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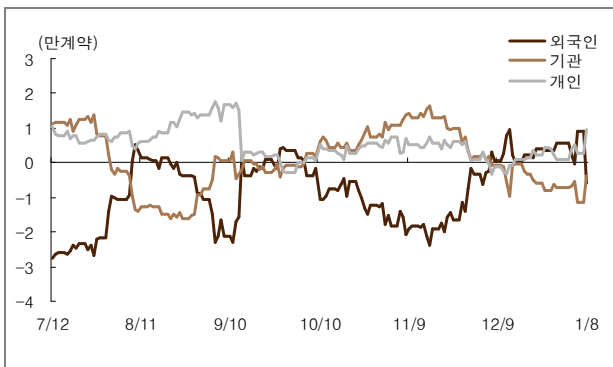
- 평균 Basis: 2.26 (전 거래일 대비 0.09 하락)
- 이론 Basis: 1.37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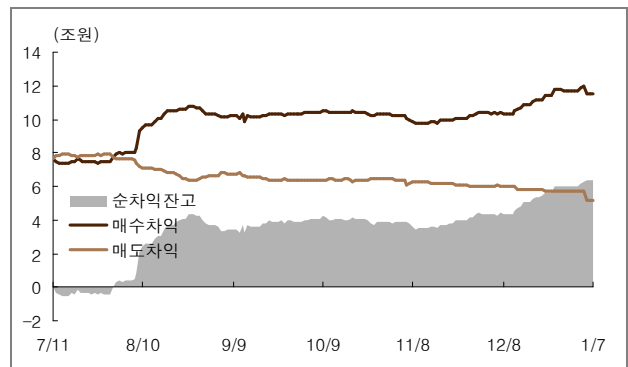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8,974 계약 감소한 116,273 계약
- 선물가격(265.40): 전 거래일 대비 2.8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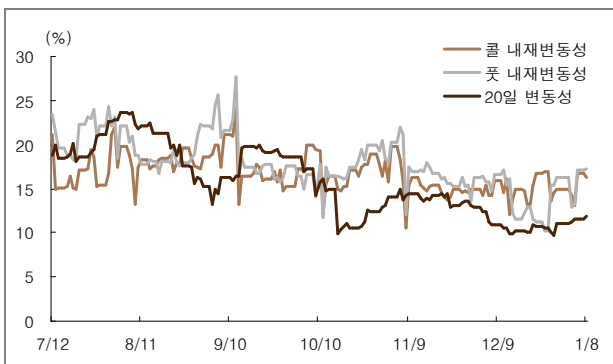
- 외국인: 14,650 계약 순매도
- 기관: 7,551 계약 순매수 / 개인: 6,827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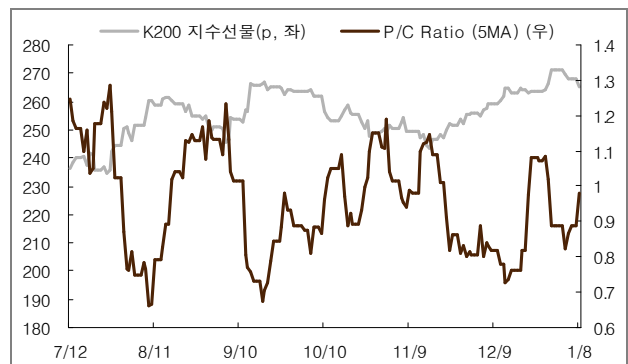
- 차익거래: 391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1,447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6.2% / 풋 17.2%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1.82%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8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12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1	1	2	3	4
韓>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4%, 1.5%, 1.6%) 中> 12월 HSBC PMI 제조업 (51.5, 51.0, 50.6)	韓> 12월 수출 YoY (-5.5%, 0.8%, 3.9%) 12월 수입 YoY (-5.3%, -2.2%, 0.7%) 12월 무역수지 (\$2,026M, \$3,275M, \$4,475M) 中> 12월 PMI 제조업 (50.6, 51.0, 50.6)	韓> 12월 HSBC PMI 제조업 (50.1, n/a, 48.2) 美> 11월 건설지출 MoM (-0.3%, 0.6%, 1.4%) 12월 ISM 제조업 (50.7, 50.5, 49.5) 中> 11월 선행지수 (100.21, n/a, 100.42)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0.4%, n/a, -12.3%)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7.2만, 36.0만, 35.0만) 12월 ADP 취업자 변동 (21.5만, 14.0만, 11.8만) 12월 ISM 뉴욕 (54.3, n/a, 52.5) FOMC 의사록 공개 새 의회 개원 中> 12월 PMI 비제조업 (56.1, n/a, 55.6)	韓> 12월 외환보유액 (\$326.4B, n/a, \$326.1B) 美> 12월 총 차량 판매 (15.30M, 15.30M, 15.46M) 12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15.5만, 15.2만, 14.6만) 12월 실업률 (7.8%, 7.7%, 7.7%) 12월 ISM 비제조업 (56.1, 54.1, 54.7) 中> 12월 HSBC PMI 서비스 (51.7, n/a, 52.1)
7	8	9	10	11
유럽> 1월 섹터 투자자기대지수 (n/a, -14.2, -16.8)	美> 1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n/a, 87.2, 87.5) 11월 소비자신용지수 (n/a, \$12.750B, \$14.158B) 유럽> 11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2.6%, -2.1%, -3.6%) 11월 유로권 실업률 (11.8%, 11.8%, 11.7%)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韓> 12월 실업률 (n/a, 3.0%, 3.0%)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10.4%)	韓> 12월 수출물가지수 YoY (n/a, n/a, -5.5%) 12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n/a, -7.6%) 11월 통화공급 M2 YoY (n/a, n/a, 0.2%)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6.5만, 37.2만) 유럽> ECB 금리 공시 (n/a, 0.75%, 0.75%) BOE 금리 공시 (n/a, 0.50%, 0.50%) 中> 12월 수출 YoY (n/a, 5.0%, 2.9%) 12월 수입 YoY (n/a, 3.3%, 0.0%) 12월 무역수지 (n/a, \$20.00B, \$19.63B) 12월 신규 위안 대출 (미확정) (n/a, 550.0B, 522.9B) 12월 통화공급 M2 YoY(미확정) (n/a, 14.0%, 13.9%)	韓> 금통위 금리결정 (n/a, 2.75%, 2.75%) 美> 12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1.5%, -1.6%) 11월 무역수지 (n/a, \$41.2B, \$42.2B) 유럽> (1/11-12) 체코 대선 中>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3%, 2.0%)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1.8%, -2.2%) 日> 11월 경상수지 YoY (n/a, -84.1%, -29.4%)
14	15	16	17	18
유럽> 11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中> 12월 실질 FDI YoY (미확정)	美> 12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유럽> 1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日> 12월 통화량 M2 YoY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2월 산업생산 YoY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럽> 12월 유로권 CPI YoY 日> 1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韓> 12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12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12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건축 허가 MoM 12월 주택건설 착공 MoM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美> 1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평가지수 中> 4Q 실질 GDP YoY 12월 산업생산 YoY 12월 소매판매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